

CCTV 모델에 기반한 성인-아동의 부정적 상호작용척도 개발과 타당화

이소희*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성인, 특히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과 부정적 언어(Negative language)로 상호작용하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척도는 이소희(2014)가 제안한 바 있는 CCTV 모델을 구축한 다음, 이에 기반하여 2차에 걸친 문항개발과 탐색적 요인분석, 구성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고자 한 것이며,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1차 문항선정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84문항을 구성한 다음, 유아 교육·보육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룹 토의와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여 56문항을 선별하였다. 2차 문항 선별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사 30명, 원장 30명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여 36문항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36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성인 416명을 대상으로 SPSS 21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해 확인된 척도의 구성요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 에 의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결과, CCTV 모델에 기반한 신뢰도 .93의 4가지 요인, 즉 Command(명령하기), Criticism(비난하기), Tag(꼬리표 달기), Vex(잔소리하기)로 구성된 25문항의 성인-아동의 부정적 상호작용 척도 ACNIS(Adult-Child Negative Interaction Scale-based on CCTV model)가 개발·타당화되었다.

주제어 : CCTV 모델, 부정적 상호작용, 성인-아동상호작용, 상호작용척도

논문 제출일: 2017. 6. 30. 최종심사일: 2017. 8. 12. 게재확정일: 2017. 8. 20.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Corresponding Author: Lee, So-Hee,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eonpalo 47 Gil, Yongsan-gu, Seoul, Korea, E-mail: leesohlee1972@sm.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삶의 영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소통의 존재이며, 특히 발달초기의 영·유·아동은 의미있는 성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발달한다. 탄생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의 양적·질적 수준은 개인의 자존감과 자신감 형성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사회생활에서도 성장·발달하고, 적응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사회적 고립을 가져올 뿐 아니라, 특히 인간발달의 초기인 유아들에게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며, 훗날 사회적 부적응의 형태인 비행을 야기시키게 된다(Fantuzzo et al., 1998). 그러므로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성인, 특히 부모와 교사의 상호작용 수준은 아동복지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아기의 자녀양육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부모의 일련의 행위 및 부모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연속이며(이소희, 2014; Brooks, 2001), 유아교육과 보육 또한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교육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선, 2016; 안경자 외, 2013; George Psathas, 2005). 특히 어머니의 신념과 가치, 태도 및 행동 등은 아동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김미정 외, 2009). 또한 유아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이룬다(김현지·나동진, 2006).

이와 같이 부모와 교사의 상호작용 수준은 특히 인간발달의 초기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인 연구형태가 소통,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으로 불리우는 이론연구와 관련척도 및 프로그램개발이다(김일부, 2017; 이소희, 2015b; 김순숙, 2014; 이소희, 2012a; 이소희 2012b; 도미향 외, 2012).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화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미있는 성인의 촉진적 의사소통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이 다르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양은미, 2014). 즉 성인이 강요하거나 명령을 지시할 때 성장 욕구나 잠재능력이 무시되고 반발감을 불러일으키고 자발성이 저하되며(유영달·이희영 외, 2013), 비난이나 핀잔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듣고 성장한 아이보다 자신감이 저하된다(허영립, 2015). 그리고 상호작용에서 의미

있는 성인을 통해 부정적 꼬리표나 낮은 기대와 같은 직·간접적인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 아이는 스스로 열등한 존재라는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조수민, 2016). 또한 아이들이 부모와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잔소리이며, 이 잔소리 때문에 아이가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정윤경·김윤정, 2012).

이와 같이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으로 강요, 명령과 지시할 때 성장 욕구나 잠재능력이 무시되고 반발감을 불러일으키며(문혜련·엄정애, 2009), 이는 또 다른 함축된 용어로 언어적 학대라고 할 수 있다(이소희, 1989). 특히 생의 초기에 경험한 잠재적 학대는 영유아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특히 정서적 부분에서 심한 상처를 주며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켜 이로 인해 많은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고 이후 발달에도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이소희, 1989; 김순숙, 2014).

그렇지만 부모던 교사던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및 연수 등을 오랫동안 교육받고,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도 영·유아의 발달특성 때문에 이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는 쉽지 않으며(김수정·곽금주, 2014; 도미향 외, 2012), 이러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일반 부모들은 더욱 그러하다(이소희, 2015a). 따라서 상호작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의 상호작용 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교육과 훈련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 척도가 개발되어왔다.

기존에 개발된 상호작용 척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소희(2015b)가 개발한 「관찰을 통한 아동-성인 상호작용코칭 척도(CICAIO)」와 또래상호작용 측정 도구인 Fantuzzo와McDermott(1998), Miller(2000)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모-영아 상호작용행동 평가 척도」, Fantuzzo(1995)등이 개발한 「Penn 또래 상호작용 놀이 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가 있다(이은주·심현섭, 2007).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Buss와 Plomin(1984)의 「EAS 기질 부모용(The EAS-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lity: Parental Ratings) 척도」 등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척도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전체 부모에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기보고식이 아닌 객관적인 관찰평가 자료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수정·정익중, 2015).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척도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침을 기초로 개발한 김현지(2005)의 「보육교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평가 척도 개발 연구」가 있으며, 임옥희·이진숙(2006)는 「보육교사의 교사-영아 상호작용 평가 척도 개발 연구」를 통해 영아 개개인과 상호작용하는 'bottom-up' 접근방식으로 도구를 개발하였다. 부정적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는 Koh(2008)의 「교사용 유아 문제행동 평가도구 개발 연구」가 있다.

또한 최선희·황혜정(2011)의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과 위축, 의존, 산만, 공격, 충동 및 전체적인 부적응 행동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사라는 교육적 입장의 특성상 부정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척도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와 같이 아동에게 의미있는 성인으로 하여금 부정적 상호작용은 양육 및 교육상황에서 거친 말로 나타나고, 이 말들은 신체적 체벌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든 교사든 부정적 상호작용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살펴본바에 의하면 척도의 개발은 상호작용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yberg 등(2005)은 발달상의 문제를 지닌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모의 상호작용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PCIT(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아동이 상호작용하는 실제상황에서 치료사가 부분적으로 부모를 코칭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 해야 할 것(PRIDE: Praise, Reflect, Imitate, Describe, Enjoy)과 하지 말아야 할 것(질문, 명령, 비난)을 과잉 연습하며 훈련하고, 이 과정이 전문가에 의해 코딩되어 상호작용의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후 훈련에 반영하도록 개발되었다.

한편 최근 상호작용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코칭접근을 시도한 6Y프로그램을 들 수 있으며(이소희·송금자·김경미·박현정, 2013), 다른 한편 코칭의 철학을 반영하여 긍정적인 이니셜을 사용함과 동시에 에니어그램과 NLP를 적용한 프로그램들도 개발되었다(이소희, 2010). 구체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코칭방식을 적용한 프로그램은 MAGIC9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MOSAIC9(이소희, 2012a; 이소희 2012b)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부모와 교사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에게 의미있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코칭방식의 상호작용프로그램도 개발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교사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되, 코칭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이소희(2014)의 TREASURE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각 이니셜을 카테고리화 하여 코칭기술을 매칭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상호작용연습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비개념을 채택하여 CCTV vs TREASURE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이소희, 2014; 이소희, 2015a). 여기에서 CCTV는 아동의 성장발달 및 아동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Command(명령하기), Criticism(비난하기), Tag(꼬리표 달기), Vex(잔소리하기)가 그것이다. 이는 아동의 긍정정서와 긍정성격의 발달을 저해하는 대화들이다(이소희, 2014). 그러나 경험적 검증과정은 아직 시도되지 않은 개념적 모델이다.

선행 연구의 흐름에서 볼 때, 그 동안의 성인-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긍정적 상호작용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며, 이를 위해 긍정의 언어로 접근할 수 있는 척도

와 코칭방식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히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 언어의 사용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구조만 제시되었던 CCTV 모델을 이론적으로 구축한 다음, 이 모델에 기반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아동에게 의미있는 성인들로 하여금 부정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진일보 할 수 있는 실천적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나아가 언어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부정적 상호작용 확인을 위한 CCTV 모델을 구축한다.

연구문제2. CCTV 모델에 기반한 성인-아동의 부정적 상호작용척도를 개발한다.

연구문제3. CCTV 모델에 기반한 성인-아동의 부정적 상호작용척도를 타당화한다.

II. 부정적 상호작용 확인을 위한 CCTV 모델의 구축

부정적 상호작용 확인을 위한 CCTV 모델의 구축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에 해당된다.

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CCTV모델은 이소희(2014, 2015a)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TREASURE Talk 코칭모델과 연관된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의 개념적 구조는 <표 1>과 같다.

<표 1> CCTV 모델의 개념적 구조

이 니 션	카테고리	정 의
C (Command)	명령하기	성인이 아동의 발달수준이나 상태, 욕구 및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아동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위협하여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만드는 독단적인 언행
C (Criticism)	비난하기	성인이 아동의 발달수준과 긍정적 의도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아동의 과거-현재-미래의 상태와 특성 및 수행결과에 대해 비하하는 부정적인 언행
T (Tag)	꼬리표 달기	성인이 아동의 신체-정신-정서-행동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성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아동에게 부정적이되, 단정적인 용어로 낙인찍는 언행
V(Vex)	잔소리하기	성인이 아동에게 명령과 비난 및 꼬리표 달기를 반복하는 부정의 언어

2. 연구방법

CCTV 모델의 구축을 위하여 실시한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타당도이다. 이는 TREASURE Talk 코칭모델(이소희, 2014)의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 1월~ 2017년 6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1) 문헌고찰

문헌 고찰은 연구자와 함께 대학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는 <숙명상호작용 연구회> 석·박사생 10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는 2000년 이후 게재된 국내외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논문과 단행본을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검토한 핵심 키워드는 상호작용, 부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영유아, 부모, 교사, 척도개발, 척도의 타당화, 부정정서 등이었다.

2)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화, 이론적 배경과 범위, 모델개발의 범위와 수준 등을 확정하기 위해 연구자와 <숙명상호작용연구회> 회원이 함께 실시하였다.

3) 전문가 타당도

전문가 타당도는 코칭방식을 적용한 부정적 상호작용모델인 CCTV 모델의 적합성을 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아동발달심리와 부모교육·부모상담을 통합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교수급 전문가 10인과 TREASURE Talk 코칭모델의 강사자격을 갖춘 전문가 10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타당도 결과는 적합-부적합의 구조에 따른 전원 일치로 적합성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지니는 명료성과 단순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연구결과

연구과정을 통해 구축하고자 한 CCTV모델은 문헌고찰을 통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각 이니셜인 C-C-T-V 에 관한 몇 가지 주요 연구를 통해 지지하였으며, 다시 핵심 내용으로 체계화하였다.

1) Command(CO) - 명령하기

CCTV 모델에서 Command의 조작적 정의는 ‘성인이 아이의 욕구와 요구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언행으로 강제적으로 금지하거나 시키는 것’이며, 약어(CO)로 표기된다. 이 이니셜의 정의는 다음의 연구결과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여 내려진 것이다. 즉 McNeil & Hembree-kigin(2010)은 명령은 아동이 놀이를 이끌어 가지 못하게 하고, 아동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 스스로 불쾌감이 조성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명령에는 직접적 명령과 간접적 명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아동 주도 상호작용을 이끌어 가지 못하게 하므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원명숙(1991)에 의하면 프리벨은 어린이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보아야하고 오직 성인은 명령적, 한정적이 아닌 소극적, 추종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CCTV 모델에서 Command의 세부내용*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와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 시키기로 구분된다.

* TREASURE 첫번째 논문(이소희, 2014)에서는 세부활동이라 기재하고 TREASURE 두 번째 논문(이소희, 2015a)에서는 코딩규칙이라 표기하였으나,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지양하는 부정의 내용이라 세부내용으로 표기함.

2) Criticize(CR) - 비난하기

CCTV 모델에서 Criticize의 조작적 정의는 ‘성인이 아이의 발달수준과 상황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약어(CR)로 표기된다. 이 이니셜의 정의는 다음의 연구결과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여 내려진 것이다. 즉 Ketterman(2000)은 비난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여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거나 상대방을 무능하다고 낙인찍어 자신감을 잃게 하는 행위, 공공연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 등이라고 하였다. 박화윤·임경례 외(2010)는 비교, 비하하는 말은 자녀에게 수치감을 주는 표현법으로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가치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여 부모에게 반감이 생기게 하며, 열등감과 적개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유영달·이희영 외(2010)는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부정적 비판은 곧 거부를 뜻하며, 상대방의 성장 가능성을 무시하고 강한 분노와 공격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복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CCTV 모델에서 Criticize의 세부내용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하하기와 개인차를 무시하고 비교하기로 구분된다.

3) Tag(TA)- 꼬리표 달기

CCTV 모델에서 Tag의 조작적 정의는 ‘성인이 아이의 특성과 행동 및 결과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명명하는 것’이며 약어(TA)로 표기된다. 이 이니셜의 정의는 다음의 연구결과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여 내려진 것이다. 즉 Corrigan(1998)와 Holmes & River(1998)는 자기낙인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으로 개인이 스스로를 꼬리표 붙이게 만들고, 부적절하며 열등한 의미로 내재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Vicki Hoefle(2014)은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내재함으로써 소속감을 더욱 발전시켜 이 과정에서 성인들의 민첩하고 부정적인 대응이 자녀를 ‘투덜이’, ‘울보’, ‘수다쟁이’, ‘트집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수민(2016)은 부정적 꼬리표나 낮은 기대와 같은 직·간접적인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열등한 존재라는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CCTV 모델에서 Tag의 세부내용은 신체적 특징을 단정 지어 부정적으로 명명하기, 행동적 특징을 단정 지어 부정적으로 명명하기, 정서적 특징을 단정 지어 부정적으로 명명하기로 구분된다.

4) Vex(VE) - 잔소리하기

CCTV 모델에서 Vex의 조작적 정의는 ‘성인이 아이의 의도와 계획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반복-지속하면서 개입하는 것’이며 약어(VE)로 표기된다. 이 이니셜의 정의는 다른 연구결과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여 내려진 것이다. 즉 Josephine(2011)은 이성적인 잣대로 건네는 말이 아니라 실망과 분노라는 감정 과잉상태에서 내 뱉는 말이기 때문에 Becky(2004)는 부모와 교사가 유아들이 자기결정에 의해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 않고, 기다려 주어야 높은 자존감과 자율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Mercogliano(2014)는 부모·유아교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유아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끼어들지 말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줌으로써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판별하고, 대처해나가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영숙(2015)은 유아들이 느끼는 잔소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는 감정으로 읽게 되므로 이런 대화는 유아의 생각, 감정, 행동을 결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CCTV 모델에서 Vex의 세부내용은 행동하기 전에 미리 잔소리하기, 행동하는 동안에 계속 잔소리하기, 행동한 후에 결과를 보면서 잔소리하기로 구분된다.

Ⅲ. 척도의 개발

1. 문헌 고찰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문헌고찰은 2000년 이후 발간된 부정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논문과 2005년 이후 발간된 부정정서와 상호작용에 관련된 도서였다.

2. 문항 개발

1) 1차 문항 선별과정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선별된 문항이 관찰을 통한 성인-아동 부정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학에서 교육·보육·상

담복지 관련학과 교수 10인과 <숙명상호작용연구회> 연구원이다. 연구기간 중 5개월에 걸친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선정된 84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통한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여 중복문항, 이중질문문항, 유사문항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내용타당도 평균 3.5미만(이은정, 2015; 엄명용·조성우, 2005)인 29문항을 제외한 56문항이 선별되었다.

2) 2차 문항 선별과정

1차로 선별된 56문항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사 30명과 원장 30명에 의해 2차 문항 선별과정을 거쳤으며, 1차 문항선별과 같은 과정을 통해 36문항이 선별되었다.

IV. 척도의 타당화

1.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선별 과정을 통해 선별된 36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울산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교사 50명, 보육기관교사 150명, 영유아 부모 300명, 원장 30명 중에서, 응답오류를 제외한 최종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기관교사 40명, 보육기관교사 101명, 영유아부모 256명, 원장 19명으로 총 416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N=416)

구 분		N	%
소속	유아교육기관교사	40	9.6
	보육기관교사	101	24.3
	영유아부모	256	61.5

	원장	19	45
연령	20-25세	2	0.5
	26-30세	30	7.2
	31-35세	198	47.6
	36-40세	115	27.6
	41-45세	39	9.4
	46-50세	26	6.3
	51세이상	6	1.4
학력	고졸이하	24	5.8
	전문대졸	149	35.8
	대학교졸	190	45.7
	대학원석사과정	35	8.4
	대학원석사졸업	15	3.6
	대학원박사과정	2	0.5
	대학원박사졸업	1	0.2
지역	서울	169	40.6
	경기	115	27.6
	부산	80	19.2
	대구	9	2.2
	울산	43	10.3
	전체	416	100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연령은 20-25세 0.5%, 26-30세 7.2%, 31-35세 47.6%, 36-40세 27.6%, 41-45세 9.4%, 46-50세 6.3%, 51세 이상 1.4%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5.8%, 전문대졸 35.8%, 대학교졸 45.7%, 대학원석사과정 8.4%, 대학원석사졸업 3.6%, 대학원박사과정 0.5%, 대학원박사졸업 0.2%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이 58.4%을 차지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지역은 서울 40.6%, 경기 27.6%, 부산 19.2%, 대구 2.2%, 울산 10.3%으로 나타났다.

2) 자료처리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정적 상호작용 척도의 구성타당화를 확인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척도의 구성요인과의 상관분석을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α 지수를 확인하였다.

척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척도의 표본적합도

Kaiser-Meyer-Olkin 측도		.91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5534.561
	자유도	300
	유의 확률	.000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 값이 .919로서 1.00에 가깝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 값이 5534.561($df=300$, $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의 사용에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 수에 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요인수를 제한하지 않고 주축요인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Promax Rotation 방법으로 요인행렬을 회전시킨 후에 최종적인 요인을 결정하였다. scree table을 참고하여 요인수를 4~5개로 지정해가며 적절한 요인 수 결정을 위해 반복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석가능성과 요인구조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4개의 요인구조가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문헌과 경험적 분석을 통해 처음 지정된 4개의 요인구조(명령하기, 비난하기, 꼬리표달기, 잔소리하기)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4개 구인들은 전체 변량의 약 60.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 문항을 선별하였다. 먼저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30이하인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12번, 13번, 14번, 22번, 29번 문항들을 제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6개의 문항 중 11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5개의 문항이 선택되었으며 그에 따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NO	문항내용	요인				공통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8	나는 아이의 현재 상태를 비꼬아 말한다.	.853				.68
20	나는 아이가 무엇을 해도 마음에 안 든다.	.817				.66
21	나는 아이의 태도에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748				.60
19	나는 아이의 말을 빈정거리며 놀린다.	.730				.58
16	나는 아이의 말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한다.	.720				.51

	다.					
17	나는 아이의 말을 듣고도 못들은 척한다.	.708				.56
15	나는 아이가 상황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619				.48
24	나는 아이가 한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이름 붙인다.		.903			.67
23	나는 아이의 신체특징을 놀리듯이 말한다.		.839			.60
26	나는 아이가 울음으로 표현하면 “이 울보야!”라고 말한다.		.821			.66
27	나는 아이가 짜증난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이름 붙인다.		.738			.62
25	나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00쟁이”라고 안 좋게 말한다.		.723			.58
28	나는 아이의 말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름 붙인다.		.629			.57
34	나는 아이의 행동 후 결과에 대해 간섭하여 말한다.			.830		.60
32	나는 아이가 행동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			.705		.61
31	나는 아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같은 말을 계속한다.			.674		.40
33	나는 “빨리 빨리”라는 말을 자주한다.			.667		.48
30	나는 아이에게 일상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			.629		.30
36	나는 아이가 무엇을 해냈을 때 내 기준으로 지적하여 말한다.			.491		.48
35	나는 아이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까지 참견한다.			.481		.48
9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시킨다.				.792	.58
10	나는 아이가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와 다른 강제로 개입한다.				.715	.46
8	나는 아이가 싫어하는 일도 내 생각대로 억지로 하게한다.				.637	.48
6	나는 아이에게 하기 싫어하는 것을 협박하여 시킨다.				.570	.33
11	나는 아이에게 “00하라”고 강요한다.				.495	.32
고유치		9.18	2.45	2.12	1.39	
설명변량(%)		36.73	9.81	8.48	5.56	
누적변량(%)		36.73	46.54	55.02	60.58	

<표 4>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척도의 하위요인을 구성된 문항을 참고로 하여

명명해보면 ‘요인1’은 전체 변량의 36.73%를 설명해주는 주요인으로 성인이 아동의 발달수준과 상황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비난하기’로 확정하였다.

‘요인2’는 전체 변량의 9.81%를 설명해주는 주요인으로 성인이 아동의 특성과 행동 및 결과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명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꼬리표달기’로 확정하였다.

‘요인3’은 전체 변량의 8.48%를 설명해주는 주요인으로 성인이 아동의 의도와 계획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반복-지속하면서 개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잔소리하기’로 명명하였다.

‘요인4’는 전체 변량의 5.56%를 설명해주는 주요인으로 성인이 아동의 욕구와 요구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언행으로 강제적으로 금지하거나 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명령하기’로 확정하였다.

2. 척도의 구성요인과의 상관

척도를 구성하는 4개의 하위요인인 명령하기, 비난하기, 꼬리표달기, 잔소리하기 요인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척도 하위 구성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성요인	명령하기	비난하기	꼬리표달기	잔소리하기	전체
명령하기	1.00				
비난하기	.58***	1.00			
꼬리표달기	.46***	.53***	1.00		
잔소리하기	.43***	.41***	.45***	1.00	
전체	.77***	.83***	.79***	.74***	1.00

*p<.05, **p<.01, ***p<.001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58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p<.001). ‘명령하기’와 ‘비난하기’의 상관이 .58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잔소리하기’와 ‘비난하기’의 상관이 .41로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요인별 상관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표 5>와 같이 구성요인과의 상관은 적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척도의 신뢰도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척도의 신뢰도

구성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명령하기	5	.79
비난하기	7	.90
꼬리표달기	6	.90
잔소리하기	7	.85
전체	25	.93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3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명령하기가 .78, 비난하기가 .90, 꼬리표달기가 .90, 잔소리하기가 .8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개발된 CCTV 모델에 기반한 성인-아동의 부정적 상호작용 척도는 안정적인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에 따라 이론적, 방법적, 실천적 측면에서 논의와 제언을 한 다음,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논의 및 제언

1) 이론적 측면에서의 논의

CCTV 모델의 구축에 대한 논의이다. CCTV 모델은 TREASURE Talk 코칭모델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개념적 구조의 대비모델로서 제시되었을 뿐(이소희, 2014),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용성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성인-아동 간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암묵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긍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 상태의 평가라는 점에서 부정적

상호작용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매우 필요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이론적 구인으로서 4가지, 즉 명령하기, 비난하기, 꼬리표 달기, 잔소리하기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코칭은 가능성을 향한 긍정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소희 외, 2014)임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개발된 코칭모델은 거의 긍정 또는 중립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이니셜을 조합하여 개발되어졌다(이소희, 2009; 2010; 2012; 이소희 외, 2014).

뿐만 아니라, 아동-성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상호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차원에서 코칭 접근을 시도한 Eyberg 등(2005)도 PRIDE라는 강도 높은 긍정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볼 때, 코칭모델의 이니셜은 긍정용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기대한다는 차원을 고려할 때, 부정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이니셜의 사용, 곧 CCTV는 코칭모델의 개발이라는 이론적 접근에서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획기적인 연구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이렇게 볼 때, 경험적으로 확인된 본 연구는 최근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언어적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시의적인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타당화된 척도를 활용하여 아동에게 의미있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들의 부정적 상호작용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도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된다면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구대상자를 보다 더 세분화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유아를 넘어서 영아와 아동, 아버지와 어머니,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등의 지위별, 성별, 역할별 등으로 세분하여 심화·확장시키는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부정적 상호작용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논의

일반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부정적 신념, 가치, 태도를 묻는 연구는 응답의 오류를 피하기 어렵다. 누구든지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무기명으로라도 나타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Blaine, 2000).

본 연구에서도 실제 연구대상자에 비해 연구자료로 사용된 질문지의 반영률이 78%라는 점은 이를 대변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함에 있어 연구윤리에 따른 사전인식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연구윤리정보센터, 2015) 주도면밀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의 문항개발과정에서 부정적 문항을 대표할 수 있는 긍정의 문항

을 삽입하여 분석을 시도했으나 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오히려 웨방을 놓는 문항으로 작용하였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타당화된 CCTV 모델은 TREASURE Talk 코칭모델의 범주에서 대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이소희, 2014). 따라서 응답오류라는 연구방법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 CICAIO (Coaching Inventory Child-Adult Interaction through Observation)를 함께 사용하면 응답오류를 확인하고, 방지함으로써 바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목표의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적 방법에서 지식-이해-적용이라는 틀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활용도가 높다(Bloom, 2000). 실제로 이러한 평가적 틀은 보건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바로 KAP(Knowledge Attitude Practice)모델이다(Coreil, 1997). 즉 연구 대상자의 지식을 질문하는 객관적 측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동학대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이소희, 1989재인용).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이소희(2017)는 연구아이디어(Research Idea)로 제안하면서 지식을 활용한 KP모델을 제시하면서 추후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따라서 KP모델을 심화 확장시킨다면 응답오류를 객관적인 연구방법이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태도측정에서도 부정적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지만, 이 척도의 사용에서도 5점 척도 또는 7점 척도에서는 중간으로의 회귀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과 실천이라는 단순한 구조는 그 효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부(2017)는 유아 인성리더십 교육을 위한 교사의 상호작용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인성리더십 구인에 대한 지필테스트를 실시하여 상호작용의 해당분야인 인성리더십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구인의 측정도 일종의 태도수준의 확인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KP모델에서 P, 즉 실천을 위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이소희(2017)는 STICK(Stop-Think-I-Can-Keep)모델*을 제시 한 바 있다. 이는 긍정적 상호작용 모델인 TREASURE Talk 코칭모델의 AS모델 중, S(Say Nothin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되었지만, 부정적인 상호작용인 CCTV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실천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후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특별히 부정적 상호작용의 결과인 아동학대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와 활용은 아동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후술하는 실천부분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즉 이론-연구방법 및 실천에서 상

* 이소희의 STICK(Stop-Think-I-Can-Keep)모델: 2017년 1학기 대학원 박사수업인 부모교육론에 제시한 모델로, CCTV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실천모델.

호유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예로는 숙명여대 박사과정 수업(2017) 중 부모교육론 수업시간 및 TREASURE Talk 코칭모델을 활용한 교육과정(TFT 강사과정)과 2017년에 다양한 대상(부부, 한부모, 조부모)을 통한 워크숍 등을 들 수 있다.

3) 실천적 측면에서의 논의

아동복지는 실천과학이다. 따라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론은 그림에 떡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에서 일획을 그은 홀트 아동복지회의 슬로건은 ‘사랑을 행동’으로이다. 사랑을 행동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연구방법론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KP모델 및 STICK 모델 등은 바로 강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의의를 지니는 실천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성인-아동사이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상호작용은 언어적 학대에 해당한다(김미예·박동영, 2009; 이소희, 1989; 이소희·도미향·김민정, 1997; 조은정·이기학, 2004). 이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의 주관 부서에서는 아동-교사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해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외부기관(아동보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이수하거나, 자체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의 항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확인하며(보건복지부, 2017),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현장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연수를 실시함과 동시에 평가인증 항목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곧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지표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7). 또한 부모교육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2014년 9월에 제정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정적 상호작용모델로서의 CCTV 모델은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더욱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CCTV’의 개념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면 실질적인 영상도구인 CCTV는 도처에 있으며, 이 CCTV는 부정적 행동을 금지하라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에서 CCTV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타당화된 척도는 강력한 이미지로 아동에게 의미있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다가가서 부정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실천적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척도의 실천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실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이소희·보건복지부, 2015c)이 강도 높은 전문강사교육을 통해 현장에 파견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치료의 백파운드보다 예방의 1온스가 낫다’는 영국의 속담처럼 부정적 상호작용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비부모, 예비교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김영은, 2016; 김재철·최재영, 2011; 한재영 외, 2008).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 훈련·교육이 대학과 교사양성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며, 특히 아동복지관련대학에서의 열정을 가진 접근이 필요하다.

2.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CCTV 모델을 구축하고,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를 수행한 결과, 4개의 요인구조로 구성된 25문항의 「CCTV 모델에 기반한 성인-아동의 부정적 상호작용척도 ACNIS(Adult-Child Negative Interaction Scale-based on CCTV model)」로 명명되었다. 이 척도의 네 가지 구성 요인은 CCTV 모델에서 제시한 부정적 상호작용유형, 즉 C(Command: 명령하기) - C(Criticize: 비난하기) - T(Tag: 꼬리표 달기) - V(Vex: 잔소리하기)이며, 척도의 신뢰도는 .93으로 보고되었다.

참 고 문 헌

- 김미예·박동영(2009).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15(4), 375-382.
- 김미정·이순형(2004). 어머니 양육가치, 양육신념 및 조정행동과 유아의 순응행동간의 관계. 아동과 권리, 8(2), 301-325.
- 김수정·곽금주(2014). 아동기 기질의 발달적 변화가 지능발달에 주는 영향: 외향적 기질과 통제적 기질특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3), 29-50.
- 김수정·정익중(2015). Korean J. of Child Studies, 36(4), 1-16.
- 김순숙(2014). 보육교사의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코칭프로그램 개발.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은(201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영유아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일부(2017). 유아 인성리더십 교육에서 교사의 상호작용 역력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

- 발 :TREASURE Talk 코칭모델 활용.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철·최재영(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1), 19-32.
- 김혜선(2016). 유치원교실의 협력적인 상호작용. 서울: 공동체.
- 김현지(2005). 보육교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평가 척도 개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 1(1), 1-19.
- 김현지·나동진(2006).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 2(2), 111-128.
- 도미향·이소희·강경자·김주아(2012).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위한 코칭접근. 코칭연구, 5(1), 5-26.
- 문혜련·엄정애(2009). 만 5세 남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간 관계. 교육과학연구. 40(2), 159-181.
- 박화윤·임경례외(2010).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모자녀관계론. 서울: 동문사.
- 보건복지부(2017).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7).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 이소희(1989).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분석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소희·도미향·김민정(1997). 그것은 아동학대예요. 서울: 동문사.
- 이소희(2010). NLPia Coaching 매뉴얼. 한국부모코칭센터.
- 이소희(2012a). Magic9 부모코칭 매뉴얼. 한국부모코칭센터.
- 이소희(2012b). Mosaic9 교사코칭 매뉴얼. 한국창의인성코칭센터.
- 이소희·송금자·김경미·박현정(2013). 6y Coaching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코칭연구, 6(1), 5-24.
- 이소희(2014). TREASURE Talk 코칭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1). 코칭연구, 7(1), 5-35.
- 이소희·길영환·도미향·김혜연(2014). 코칭학개론. 서울: 신정.
- 이소희(2015a). TREASURE Talk 코칭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2). 코칭연구, 8(1), 5-40.
- 이소희(2015b). 관찰을 통한 아동-성인 상호작용 코칭 척도의 개발. 코칭연구, 8(2), 5-23.
- 이소희·보건복지부(2015c). 클로버부모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소희(2017). 부모교육론 박사수업 교재. 숙명여자대학교.
- 이영숙(2015). 잔소리의 품격. 서울: 가디언.
- 이은정(2015). 유아 사회정서능력 측정척도의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심현섭(2007). 취학전 말더듬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행동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2(2), 279-295.
- 유영달·이희영·김용수·이동훈·하도겸(2013). 인간관계의심리-행복의열쇠. 서울: 학지사.

- 안경자 외(2013).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현장이야기. 서울: 공동체.
- 양은미(2014). 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정서지능의 매개 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명용·조성우(2005). 사회복지실천과 척도개발. 서울: 학지사.
- 임옥희·이진숙(2006). 보육교사의 교사-영아 상호작용 평가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정과학학회, 9(1), 5-13.
- 원명숙(1991). Froebel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유치원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민(2016). 가정외보호아동의 낙인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의 양방향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정·이기학(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5(3), 583-595.
- 정윤경·김윤정(2012).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잔소리. 서울: 담소.
- 최선희·황혜정(2011).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10(3), 1-18.
- 허영림(2015). 내 아이의 자신감 자존 :아이의 미래는 자신감이 만든다. 서울: 아주 좋은날.
- 한재영·윤지현·노태희(2008). 예비 교사 교육 방안으로서 코티칭의 유용성. 한국교원교육연구, 25(1), 117-136.
- Becky, A. B.(2004). 엄마의 자제력이 아이의 자신감을 키운다. 전행선 역(2011). 서울: 랜덤하우스 스코리아.
- Blain, B. E.(2000). The psychology of diversity : Perceiving and experiencing social difference.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 Bloom(2000). How children learn the meanings of words. Cambridge, MA, US: The MIT Press
- Brooks, J. B.(2001). Parenting.. 이순례·문연심·신건호역(2005). 새로운 세대의 부모와 자녀. 서울: 학지사.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 J. : Erlbau.
- Coreil(1997).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nalysis of Health. View issue TOC. 11(2), 252 - 255.
- Corrigan, P. W.(1998). The impact of stigma on severe mental illnes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5, 201-222.

- Eyberg, S. M., Nelson, M. M., Duke, M., & Boggs, S. R.(2005). Manual for the dyadic parent-child interaction coding system. 3/E. 두정일·이정숙 역(2012). 부모-아동 상호작용 코딩시스템 매뉴얼 제 3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 Fantuzzo, J. W., Manz, P. H., & McDemott, P.(1998). Parental version of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An empirical analysis of its use with low-income children.
- George Psathas(2005). CONVERSATION ANALYSIS: The Study of Talk-in-Interaction. Boston University.
- Holmes, E. P., & River, L. P.(1998). Individual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stigma of severe mental illnes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5, 231-239.
- Josephine, M. K.(2011).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 서울: 서울문화사.
- Ketterman(2000). Answers to the Questions Parents Ask Most.
- Koh(2008). A study f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acher's preschool behavior checklis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McNeil, C. B., & Hembree-Kigin, T. L.(2010). 부모 아동 상호작용치료. 서울: 학지사.
- Mercogliano, C.(2014). 길들여지는 아이들. 오필선 역. 서울: 민들레.
- Miller, A. L. (2000). Mother-infant interaction across situations: Assessing contextual effects on behavior and predicting toddlers socio-emotional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Vicki Hoefle(2014). 부모의 5가지 덫. 도희진 역. 예담프렌드.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dult–Child Negative Interaction Scale based on CCTV Model

Lee, So hee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to identify the interaction of negative language with meaningful adults, especially parents and teachers, who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child 's developmental process.

This scale, based on this after building CCTV coaching model by Lee(2014), was developed through item development twice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est of validation by correlation analysis with components.

In the process of the 1st item selection, it was made 84 items that fit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was made 56 items after testing content validity by group discussion and 5-point Likert scale for early child education·care experts.

In the process of the 2nd item selection, it was made 36 items after testing content validity by 5-point Likert scale for 30 teachers and 30 heads of early child education·care center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selected 36 items were test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using SPSS 21 to confirm the validity for 416 adults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show the correlations with components of the scales identifi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was used to calculate the reliability coefficient.

As a result,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highlight development and validity of ACNIS(Adult–Child Negative Interaction Scale–based on CCTV model) including 25 items with four–factor structure based on CCTV model: C (command), C(criticize), T(tag), V(vex) and reliability was .93.

key words : CCTV model, Negative Interaction, Adult–Child Interaction, Interaction Scale

* Associate Professor,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